

정연두의 하모니

July 2025 | 김지선 에디터

N
O
W
A
R
T



정연두의 하모니

예술을 통해 타인의 삶에 머무르는 작가, 정연두가 빛어낸 삶과 발효의 리듬에 대하여.

EDITOR KIM JISEON PHOTOGRAPHER LEE JAEAN

정연두 작가의 개인전 <불가피한 상황과 피치 못할 사정들>이 열리고 있는 국제 갤러리 부산점에는 지금 콘트라베이스, 보컬, 색소폰, 오르간, 드럼을 맡은 다섯 음악가가 내는 블루스 선율이 공명하고 있다. 음악과 더불어 전시장에는 만화경 처럼 빛을 발하는 향아리, 콩과 바실러스균이 만나 하얀 거품이 익살스럽게 피어오른 메주 사진, 러시아어가 적힌 색색깔의 천, 우주를 연상시키는 화면 등이 펼쳐져 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무척이나 흥미로운 조화와 어긋남을 목도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몰입하고 있는 음악가들의 연주가 인상적인 협주가 되고, 입구에 놓인 향아리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의 손가락에 맞추어 빛을 발하며, 연주자의 시선이 닿은 곳에서 사위도우가 되기 위해 리드미컬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는 밀가루 반죽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음악적이다. 블루스 음악과 발효의 이미지는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전시장 전체가 들쭉이는 듯한 복합적인 경험을 만들어낸다. 누룩과 미생물과 유기산이 함께하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협연이다. 정연두 작가는 말했다. “블루스 가사엔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했지만, 난 그냥 사람이 되었어요.’ 유머러스하고 자조적인 태도,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림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지점이 블루스의 기본적인 뉘앙스인 것 같아요. 뜻대로 되지 않는 점은 발효도 마찬가지죠. 이런 정서가 이번 전시의 뼈대가 됐어요.” 정연두 작가는 그동안 이질적인 존재들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연결해왔다. 문화와 역사, 다채로운 대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삶의 신비로움을 탐구하는 그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저마다의 슬픔과 기쁨을 안고 있는 모든 존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또한 비판도 낙관도 아닌 태도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말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을 통과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작업실에 도착해서 색색깔의 유리구슬로 빛을 만드는 과정을 잠시 엿보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무엇인가요? 향아리 안에서 소리와 빛을 내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악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작업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대만의 마쭈 열도(Matsu Islands)예요. 그곳에는 양조장의 술 향아리들이 수백 개 놓인 동굴이 있어요. 현재는 술을 익히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저는 그중 일곱 개의 향아리를 악기로 바꾸려고 해요. 향아리마다 다른 음을 내도록 설계하고 있어요. 마쭈섬은 1950~1960년대 장제스 정권 시절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곳이에요. 섬 곳곳에 붉은색으로 새겨진 선전 문구들과 수백 개의 병커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병커들은 지하 도시처럼 연결되어 있고, 바닷가로 연결된 통로도 있

어요. 이처럼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 ‘마쭈 비엔날레(Matsu Biennial)’를 개최하고 있고, 저는 커미션 작업으로 이 향아리 악기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진행 중인 개인전 <불가피한 상황과 피치 못할 사정들>을 인상 깊게 감상했습니다. 이 전시에서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시장 입구에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음악가는 버클리음대에서 재즈를 가르치는 레이 쉘(Ray Soul)이에요. 저에게 블루스의 음악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이번 전시의 음악적 틀을 함께 고민해주었죠. 레이 쉘의 연주는 고통스럽더라도 깊은 몰입을 통해 감정을 끝까지 끌어내는 스타일이에요. 머리를 땅고 손톱에 파란 매니큐어를 바른 채 색소폰을 연주하는 코이 시몬스(Coy Simmons)는 옹크린 채 숨을 내쉬듯 천천히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연주자예요. 블루스 음악에서 건반을 맡는 음악가는 대체로 장난꾸러기인데, 이번엔 함께한 오르간 연주자 이효주는 ‘삼치와 이끼리의 멤버로 연주 실력이 뛰어나면서 굉장히 정감 있는 사람이에요. 드럼 연주자는 저의 제자예요. 작년에 한 학기 동안 국과 발효에 대한 수업을 함께했고, 술도 담그고 그림도 그리고 밴드부 활동도 했죠. 일반적으로 합주는 한자리에 모여 호흡을 맞추며 연주하지만, 이번 작업은 67bpm의 느린 블루스 박자와 간단한 코드만을 공유하고 서울, 보스턴 등지에서 따로 연주하며 촬영했어요.

블루스는 특히 연주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장르인데,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연주한 음악이 근사하게 어우러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협주를 전체로 촬영한 게 아니다 보니 개별 악기들이 독립적으로 들리면서도 묘한 상관관계를 맺어요. 서로를 완전히 인지할 수 없음에도 그 안에서 서로를 의식하고 타이밍을 맞춰가는 것이지요. 결국 연주자들은 본능적으로 협연을 해요. 그 본능적인 배려와 센스가 굉장히 놀라워요. 반면에 미술가의 태도는 약간 다르죠. 저는 가끔은 충돌이 우연히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해요. 일부러 조금 엇갈리는 타이밍을 주거나 균열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거죠. 못된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예기치 않은 충돌이 오히려 새로운 울림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연주자들 사이의 협연뿐 아니라 블루스 음악과 발효의 이미지가 한데 어우러지는 장면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연주자들의 시선과 발효의 이미지가 연결되기도 하고, 발효의 리듬이 블루스의 리듬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구성은 구체적으로 기획된 것인가요, 아니면 우연의 산물인가요? 양쪽 다일 거예요. 이번 전시장도 음악을 하는 분들이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연주의 타이밍이나 템포가 조금씩 어긋

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임윤찬과 조성진이 같은 건반을 연주해도, 한 사람은 아주 감성적으로 해석하고, 한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치잖아요.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예민하게 느끼며 곡을 감상하죠. 저는 이 전시장이 그런 식의 '복식 청취'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충동의 장이죠. 미술이 흥미로운 건, 여러 감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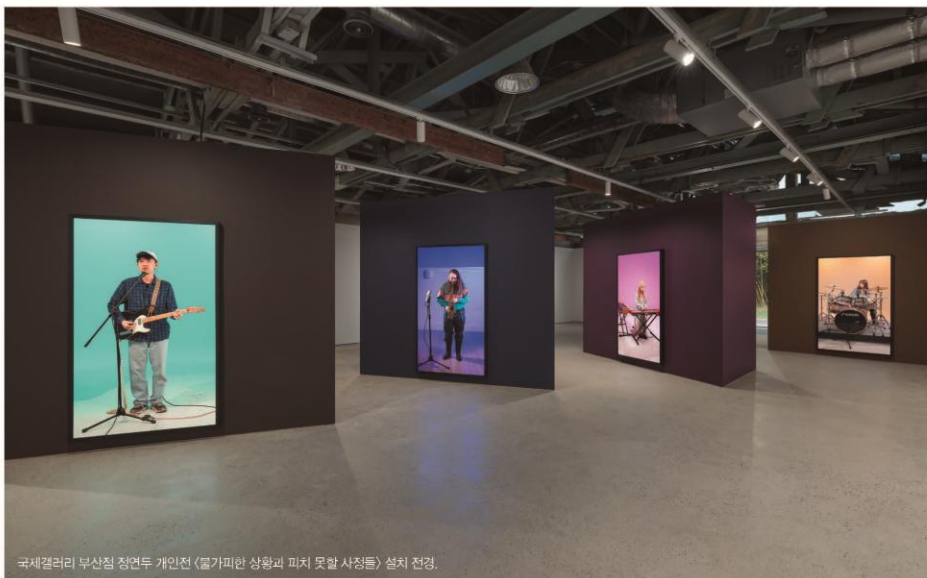
작가님의 작업에서 만남과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산의 한 러시아어 학원에서 만난 고려인 2세 청소년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가사를 쓰고 블루스 음악으로 풀어내었는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나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참 어려워요. 고려인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여정의 연속이예요. 만주에서 시작해서 소련 전역으로 흩어졌다가 일본의 압박으로 다시 쫓겨나고, 소련 시절엔 강제 이주되어 키르기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또 옮겨가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고 정착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작가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들어요. 그런 고민 끝에 시도해본 것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선보인 '백년 여행기(2023)'라는 프로젝트예요. 한 개인의 서사를 다루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보려 했죠. 그럼에도 고려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은 여전히 망설여져요. 지금 한국에는 전국 공업단지에 걸쳐 고려인 3세, 4세들이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넌 한국 사람이야. 한국 가서 성공해야 해"라는 부모님의 말을 믿고 한국에 왔지만 러시아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죠. 러시아에 친한 친구들을 다 두고 갑자기 한국의 학교에 들어가서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 하는 채로 집에만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친구들을 위해 안산에 '노아네 러시아 학원'이라는 복지 단체가 만들어졌고, 저는 그곳에서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복잡하고, 그것을 예술 작품 안에서 축소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싫었어요. 그때 블루스 음악이 저에게는 빛과 같이 느껴졌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러시아어로 인도네시아에서 유래한 바틱(Batik) 천 위에 새겨졌고 한국의 치자, 강황, 자초 등 약초로도 쓰이는 천연 염색제로 천을 물들었어요. 러시아

어와 인도네시아 염색 기법과 한국의 약초를 조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조합이 그들 자체로 느껴졌어요.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갖고 있고 러시아어를 사용하지만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한국의 약초를 사용한 것은 개인적인 의미도 있어요. 한의사였던 아버지가 한약으로 사람을 낫게 하는 걸 보며 자랐는데, 그 치유의 기억을 작품으로 이어가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차트에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쓰셨어요. 병세에 대해 쓴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아주 사적인 메모도 적혀 있었어요. "아드님은 군대에서 잘 지내시나요?" 같은 것들이죠. 거기서 치유는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완벽한 공식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생기는 감정과 흔들림 속에서 작동하는 치유의 힘이 있는 것이죠.

작가님의 작업도 그러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이 아닌 예술에서 필요한 신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술은 항상 배반한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음악 전시라고 알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전혀 음악 전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처럼요. 치유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가 무슨 치유를 하겠어요. 정성은 다할 수 있지만, 미술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제 기대일 뿐이죠. 그럼에도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전하는 게 미술의 진짜 힘이 아닐까 생각해요.

블루스와 발효를 연결하는 시도는 아마도 세계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웃음)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썩고 죽고 사라지는데, 그냥 썩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서글프잖아요. 근데 발효 과정에서 부패가 상큼한 향이 되기도 하고, 알코올로 변해서 다시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블루스 음악도 마찬가지로요. 흥겨움을 위해 애쓰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너도 그래? 잘 됐네, 우리 이제 이걸로 살아갈 이유가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음악이잖아요. 이런 지점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발효와 블루스가 연결된 전시를 만들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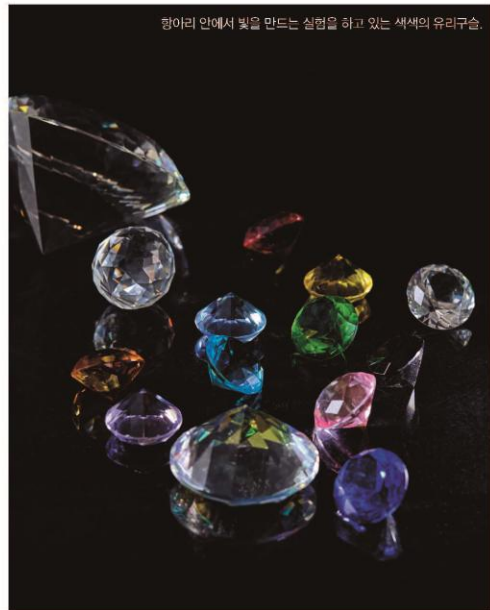
국제갤러리 부산점 정연두 개인전 〈물가피한 상황과 피지 못할 사정들〉 설치 전경.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발효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예술 작업의 일부였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었나요? 제가 원래 좀 구질구질해요.(웃음) 작업실에서 막걸리를 담고, 매일로 우메보시도 만들고, 해외에 거주할 때는 공용 주방에서 베트남 소스로 김치를 담그다가 새우젓이 든 병이 폭발하기도 했어요. 그날은 새벽까지 사방에 튀는 새우젓을 닦았죠. 발효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만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주기 때문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발효가 더 재미있고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술을 담고 완성되기까지 일주일쯤 걸리는데, 그동안 뚜껑을 열면 제 작업실 안의 온갖 먼지 속균이 들어가버려요. 그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건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뚜껑을 안 열 수도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저어줘야 하기도 하고, 너무 궁금하거든요. 결국 열고 휘저어보고, 향긋한 냄새도 맡아보면서 발효의 결과보다는 과정,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빠르게 전달하고 이해되고 끝나는 지금 시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감각인 기다림이 주는 매력이 정말 커요. 발효와 관련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생물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이미지로 만들 수 있을지, 혹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한편으로 제가 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발효와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그리고 삶의 조건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메주의 포트레이트'라는 방식으로 가시화한 것에 감탄했어요. 메주에서 피어오른 하얀 거품에서 도깨비의 얼굴을 발견한 유머러스한 사진도 작가님다웠고요. 이 메주 사진은 어디에서 촬영했나요? 저는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감동이에요. 도깨비 형상 같기도 하고, 총명할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한 메주의 모습이 굉장히 귀엽게 느껴졌어요. 포항과 청송 사이 깊은 산골에 사촌 형이 운영하는 '죽장연'이라는 메주 공장이 있었어요. 형은 그 공장에서 묵묵히 메주를 만들며 젊음을 다 바쳤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농한기마다 모여 지푸라기를 땅에서 말리고 엮어 향아리에 메주를 달아요. 이 과정에서 올라온 균들이 콩에 스며들고 발효를 일으키죠. 그렇게 발효된 메주는 향아리 속에 담겨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깊어지고 향이 복합적으로 변해요. 부드러운 풍미와 짙은 색을 띠는 2013년산 된장이 특히 맛있었어요. 시간이 만든 맛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시화한 또 하나의 방식은 '밀가루를 흠뻑려 만든 우주'였어요. 발효와 우주를 연결한 맥락은 무엇이었나요? 강릉의 중앙시장에서 누룩을 샀어요. 쉽게 말하면 '강릉의 균'을 서울까지 가져온 거죠. 조선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술을 만드는 도가(都家)가 30만 호나 있고 집집마다 술맛이 달랐다고 해요. 왜냐면 집마다 고유한 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손맛'이란 것도 결국은 그 사람 손에 묻은 균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양조가 금지되고, 도가들은 문을 닫고 쌀도 수탈당했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국가에서 술을 만드는 것을 통제했고, 고유의 균들이 점점 사라졌죠. 막걸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누룩 안에는 사실 수많은 균이 섞여 있었어요. 새콤한 맛, 달콤한 맛, 고소한 맛을 내는 균, 썩는 균, 곰팡이 균 등 뭐가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자주 누룩을 주문하는 곳에선 치즈처럼 신난 가득 누룩이 쌓여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 집 누룩의 비밀이 뭐냐고 묻자 누룩을 받치고 있는 오래된 각목을 꺼내 보이며 "이게 우리 집 정주목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엔 대체 어떤 균이 살고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마치 우주 같죠.(웃음)



그야말로 발효의 우주네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배양한 균만을 써요. 확실하게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균, 술을 망치지 않게 해주는 균이죠. 이런 균을 넣으면 공장에서 몇 톤씩 술을 만들어도 시큼하게 변질되지 않아요. 대신 맛은 단조롭죠. 단맛을 위해 아스파탐 같은 걸 넣고, 복잡한 풍미는 사라져요. 예전처럼 수많은 균이 공존하던 시대와 지금의 효율적인 단일균의 세계 사이엔 큰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참 좋았어요. 단오제를 준비하며 각 지역에서 쌀을 3킬로그램씩 모아 신에게 바칠 술을 만들었어요. 그건 단순히 염원을 담은 봉양미가 아니라 지역마다의 균을 모은 행위이기도 해요. 그걸로 만든 술을 신에게 바친다는 것,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선미(禪味)' 같다고 느껴졌고, 발효는 결국 종교와 우주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세계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의 작업을 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한데 끌려 올라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리서치용으로 챗지피티를 종종 활용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챗지피티가 예술가 정연두에 대해서 "타인의 삶에 머물며 이야기하는 작가"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정의에 동의하나요? 이번에 미국 피바디 에섹스(Peabody Essex) 뮤지엄에서 '왕복타워(2001)'라는 가족 초상 사진을 전시했어요. 2001년에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 찍은 사진이에요. 당시 서울이 낯설고 신비롭게 느껴졌는데,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받기 쉽지 않아서 한집 한집 문을 두들겼어요. 그러다 어느 집 아주머니께서 "오늘 태어난 601호 아이가 병원에서 돌아온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집에 연락해보니 사진 찍는 걸 허락해주었죠. 그래서 남편은 피자 한 판을 들고, 부인은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 장면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이번에도 전시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프닝 때 그 사진 속 가족이 찾아왔어요. 당시의 아이가 지금은 스물다섯 살쯤 됐을 거예요. 그런 인연이 작품을 통해 이어지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지요. 챗지피티는 거짓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품을 통해 타인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